

韓國의 賃金分配의 推移, 1967~81

李 廷 雨*

<目 次>

- I. 序 論
- II. 賃金分配의 推移, 1967~81
- III. 既存研究의 批判的 檢討
- IV. 結 論

I. 序 論

經濟發展과 더불어 所得分配가 어떻게 變化하는가 하는 問題는 최근 經濟學의 重要한 研究課題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이 問題에 대한 學界의 관심의 증대는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後進國에 있어 종래의 成長至上主義의 思考 및 政策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提起되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分配問題는 經濟學 안에서 전통적으로 등한시되어 온 分野이지만 최근에는 상당한 研究의 진진을 보여주고 있다. 이 問題에 관한 理論的 解明은 아직까지는 經濟學의 다른 分野들에 비해 훨씬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1970年代에 오면서 특히 世界銀行이나 ILO 등의 國際機構를 중심으로 하여 後進國의 所得分配에 관한 實證的 研究가 활발히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學界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韓國의 所得分配에 관해서도 그간 상당한 分量의 研究가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韓國의 경우 所得分配 자체를 조사하기 위해 작성된 統計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모든 研究는 다른 目的을 위해 만든 統計에 여러가지 假定을 도입한 뒤 계산해 본 推計値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分配에 관한 한 現在로서는 完備한 研究가 있을 수 없다. 이들 研究中에서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세련된 方法을 썼다고 보여지는 최근의 한 推計(朱鶴中, [22])에 의하면

* 慶北大學校 經濟學科

韓國의 所得分配은 1965年에서 1970年 사이에 약간 改善되었다가 1970年에서 1976年 사이에는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不平等이 U字의 모양을 가지고 변화해 온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겨우 11년 밖에 안되므로 쿠즈넛츠의 逆U字假說에 비추어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1970年代에 韓國의 所得不平等이 深化되었다고 하는 이 研究結果는 대단히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게끔 되었다.¹⁾ 朱鶴中の 研究結果의 影響力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世界銀行에서 매년 나오는 『世界發展報告書(World Development Report)』의 1980年度 및 그 이후 年度의 卷末에 있는 各國의 所得分配의 五分位指數의 값에서 1976年度 韓國의 數値가 朱鶴中の 推計値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世界銀行이 朱鶴中の 研究結果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 研究結果가 옳은 것이라면 韓國의 所得分配은 아시아의 여러나라의 經驗과는 전혀 다른 樣相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즉 日本, 臺灣, 홍콩, 싱가포르등 韓國과 비슷하게 輕工業製品의 輸出을 밑바탕으로 하여 급속한 工業化를 추진해 온 나라들에서 모두 최근 10~20年間 상당한 정도로 所得分配의 改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유독 韓國만은 그 例外인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는 問題는 理論的, 政策的으로 매우 중요한 意味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本稿에서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韓國의 賃金分配의 推移를 分析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賃金에 관심을 한정시키는 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賃金은 그 자체 全體所得中에서 매우 큰 比重을 차지한다. 先進國의 경우 이 비중은 대개 $\frac{2}{3}$ 내지 $\frac{3}{4}$ 에 이르고 韓國의 경우에는 아직 $\frac{1}{2}$ 정도 밖에는 안되지만 앞으로 상승할 것이 확실하다. 둘째, 所得分配에 관한 統計는 대개 未備되어 있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問題가 많은 것이 보통인데 賃金統計는 상대적으로 그런 問題가 적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사용할 主要資料는 勞動部에서 1968年 이래 매년 발간하고 있는 『職種別賃金實態調查報告書』²⁾인데 이것은 全國, 全產業에서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民間事業體의 賃金臺帳을 調査한 것으로서 標本의 크기는 최근 30만명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다만 9인 이하의 從業員을 가지는 零細事業體가 빠진 것이 흠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수는 非一次產業에서 $\frac{2}{3}$ 나 되므로 이것은 자못 중대한 缺點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統計가 없는 이상 어쩔 도리가 없

1) 英文으로 된 文獻으로서의 발라[5], 스찰[20], 李[12], 정[9] 등이 있고 國文文獻은 너무 많아 일일이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2) 이하 『職種別賃金』으로 略稱기로 한다.

고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事業體만을 분석할 수 밖에 없다. 小規模 調査라도 좋으니 政府는 하루 빨리 零細事業體에 대한 統計를 수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本稿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는 1971年度『職種別賃金』의 컴퓨터 테이프³⁾를 利用하여 지니係數(Gini ratio)를 계산한 뒤 그것을 기초로 하여 다른 연도의 지니係數를 출판된『職種別賃金』으로부터 推算할 것이다. 그 結果는 예상 밖으로 지니係數가 지난 15年間 감소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韓國의 勤勞所得의 分配가 악화되었다고 하는 기존의 研究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結果이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캐어보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우리는 린다우어의 研究와 앞서 言及한 朱鶴中の 研究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그 結果는 적어도 賃金의 分配에 관한 한 어느 정도의 改善이 이루어졌다는 結論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II. 賃金分配의 推移, 1967~81

勞働部에서 입수한 1971年度『職種別賃金』의 테이프에서 5,064명의 無作爲標本을 뽑아 내었고 여기서 賃金分配의 지니係數를 계산해 낼 수 있었다. 단 여기서 賃金이란 定額給與와 超過給與를 합한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보너스를 제외시키는 이유는 나중에 보는 바와 같이 출판된『職種別賃金』에서 賃金階層別 勤勞者數를 利用하여 지니係數를 推算하게 되는데 이 統計에서 말하는 賃金속에는 보너스가 대개 빠져 있기 때문에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이다.

1971年度 테이프에서 얻어진 標本으로부터 계산된 지니係數의 값은 0.392이다.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니係數의 값 자체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變化이다. 그런데 다른 연도의 資料로는 출판된『職種別賃金』의 冊子를 利用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무언가 지니係數를 계산해 내는 특수한 方法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마침『職種別賃金』에는 賃金階層別 勤勞者數라는 資料가 주어져 있으므로 이것으로 우리는 지니係數의 近似値를 계산할 수 있다. 즉, 카쿠와니(Kakuwani)가 제시한 集團資料(grouped data)에서 지니係數의 近似値를 推定하는 方法을 利用하면 상당히 믿을만한 推計가 可能하다고 보는 것이다.⁵⁾ 카쿠와니의 方法을 아주 단순화시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지금 N개의 賃金階層과 각 階層에 속하는 勤勞者의 數

3) 테이프를 제공한 勞働部에 감사한다.

4) 보너스를 포함시켰을 때 지니係數의 값은 0.402이다.

5) 상세한 方法에 대해서는 카쿠와니[10] 참조. 여기서는 그가 제시한 몇가지 函數形態 중에서 3차함수 接近法을 채택키로 하였다.

그리고 각 階層의 平均賃金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로렌즈곡선상의 $N+1$ 개의 점을 잡을 수 있다. 이점들을 서로 직선으로 연결해서 얻어지는 多角型에서 지니係數를 계산해 낸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니係數의 下限値에 불과하다. 진정한 지니係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N+1$ 개의 점들을 曲線으로 연결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函數形態를 가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종래에는 위의 지니係數의 下限値를 가지고 近似値로 使用한 경우가 있었으나(예컨대 브론펜브렌너[6], 모간[16] 등) 카쿠와니의 方法은 그것을 한걸음 더 발전시켜 진정한 지니係數의 값에 접근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方法의 正確성을 檢査해 보기 위해 1971年度『職種別賃金』의 테이프를 갖고 두가지 計算을 해보았다. 하나는 5,064명의 賃金을 가지고 직접 지니係數를 계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標本을 1971年度『職種別賃金』에서와 똑같은 賃金階層으로 나눈 뒤 카쿠와니의 方法에 의해 지니係數를 계산하는 것이다. 결과는 양쪽의 지니係數가 소숫점 세째자리까지 같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카쿠와니의 方法이 일단 믿을 만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職種別賃金』의 賃金階層別 勤勞者數의 자료에 카쿠와니의 方法을 適用할 때 한 가지 큰 問題가 있다. 그것은 賃金階層別 平均賃金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편의상 각 階層의 中點을 平均賃金으로 일단 가정해 보았다. 그리고 最低賃金階層과 最高賃金의 경우에는 中點이 없기 때문에 前者의 경우에는 上限賃金의 0.7배, 그리고 後者の 경우에는 下限賃金의 1.35배를 각각 平均賃金으로 보기로 가정하였다.⁶⁾ 이렇게 가정을 하는 이유는 1971年度 테이프의 5,064名 標本에서 얻은 最低 및 最高賃金階層의 平均賃金이 그러한 값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히 임의적인 가정이지만 다른 情報가 없는 상황에서의 苦肉之策이다. 이러한 平均賃金에 대한 가정위에서 계산한 1971년의 지니係數는 진정한 지니係數와 불과 0.3%의 誤差 밖에는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카쿠와니의 方法에 의한 推算은 階層別 平均賃金의 값에는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각 階層의 平均賃金을 中點(즉 50%)의 아래인 40%되는 점으로 가정했을 때의 지니係數는 역시 진정한 지니계수와 0.3%의 誤差 밖에는 가지지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賃金階層이 상당히 細分되어 있는 경우에는(1971년에는 18階層으로 나뉘어 있음) 각 階層의 平均賃金을 어떻게 잡더라도 카쿠와니의 方法에 의한 지니係數는 대단히 안정적인 것 같

6) 예컨대 前者가 月 10만원 미만의 賃金을 받는 階層이라 할 때 이 最低階層의 平均賃金을 7만원으로 본다는 뜻이며 後者가 月 100만원 이상이라면 平均賃金을 135만원으로 본다는 뜻이다.

다. 그러나 最低 및 最高賃金階層의 平均賃金에 대해서는 假定이 달라짐에 따라 지니係數의 값이 상당히 크게 달라질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카쿠와니의 方法을 利用하여 賃金分配의 不平等的의 시간에 따른 變動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가 쓸 主要한 資料는 1971년부터 1981년까지의 『職種別賃金』이다.⁷⁾ 1971年 이전의 자료로서는 1967年의 韓國銀行의 『賃金基本調査報告書』와 1970年의 韓國産業開發研究所의 同名의 調査를 利用하기로 한다. 1967年의 調査는 鑛業 및 製造業에서 5인 이상의 中業員을 가지는 事業體, 그리고 1970年의 調査는 非 1次産業에서 5인 이상의 從業員을 가지는 事業體를 調査對象으로 하여 각각 35,000名 및 20,000名 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標本을 기초로 한 統計이다. 비록 뒤의 『職種別賃金』과 完全히 일치하는 통계는 아니지만 企業規模와 産業의 차이에만 주의하면 이들 統計는 『職種別賃金』과 비교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 統計에 들어 있는 賃金階層別 勤勞者數의 資料에서 階層의 수는 최저 12에서 최고 23 사이로 꽤 많은 편이다. 그러나 몇 해의 자료에서는 最高賃金階層에 속하는 勤勞者의 수가 너무 많아 問題가 된다. 이 問題는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명목임금이 매년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賃金階層이 계속 使用된 해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 해는 最高賃金階層의 勤勞者가 全體의 22%나 되는 1977年과 17%가 되는 1976年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두해에는 賃金階層의 수도 13개 밖에 안되어 지니係數의 精確한 推算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예상대로 計算結果는 이 두해의 지니係數가 터무니없이 낮게 나타났고 따라서 이 두해는 빼 버리기로 하였다. 나머지 연도 중에서 1975年과 1978年의 資料의 價値도 또한 다소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最高賃金階層에 들어가는 勤勞者의 비중이 1976年이나 1977年만큼 크지는 않지만 8~9% 정도로 역시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해의 計算結果는 추세로부터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고 또 이 두해마저 빼 버린다면 1975年에서 1978年까지 4年間에 관한 情報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셈이 되므로 1975年과 1978年은 약간의 주의를 하면서 일단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그 밖의 年度들은 적어도 最高賃金階層의 勤勞者의 비중에 관한 限 3% 미만이므로 별로 問題가 없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問題가 最低賃金階層에서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 問題는 앞의 最高賃金階層의 경우보다 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最低賃金階層의 폭은 0의 賃金이라는 下限이 있으므로 最高賃金階層 보다 훨씬 좁기 때문이다. 그리고

7) 『職種別賃金』의 1968년부터 1970년까지의 3年分은 자료가 불충분하고 信賴性도 약하므로 제외시켰다.

最低賃金階層에 속하는 勤勞者의 비중도 1976年の 8%를 제외하고는 매우 작는데 1976年은 이미 빼기로 되어 있는 해이므로 더 이상 問題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1970年の 統計에서는 賃金階層別 勤勞者數 대신 勤勞者數의 比重이 퍼센트로 나타나 있어 다른 年度에 비해 正確性을 기하기 어렵지만 計算結果가 앞뒤해와 모순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연도에 따라 月給與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月給與가 定額給與와 超過給與의 合計로 되어 있는데 1975年에서 1979年까지의 5年間の 統計에는 거기에 보너스까지 加算되어 있다. 보너스가 포함되면 賃金不平等이 커진다고 기대되므로 1975, 1978, 1979의 세해(1976, 1977年은 이미 除外되었음)의 지니係數의 값은 약간 조정된 연후에야 다른 해들과 비교가 可能하다. 1971年の 테이프로서 계산해 본 결과 보너스가 포함됨으로 인해 지니係數가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세해의 지니係數도 3.5%씩 할인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물론 대단히 소박한 方法임에 틀림없으나 다른 情報가 없는 状況에서는 별다른 方法을 찾기가 어려웠다.

최종의 計算結果에 도달하기 전에 몇가지 問題點을 더 검토할 必要가 있다. 앞서 言及했듯이 1975年과 1978年은 最高賃金階層에 비교적 많은 勤勞者가 몰려 있다. 그뿐만 아니라 賃金階層의 수도 다른 해보다 적다. 이 두가지 要因은 이 두해의 推算値를 실제보다 過小評價하기 쉽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最高賃金階層에 속하는 勤勞者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階層의 平均賃金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 問題는 어느 정도 높여주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것이다. 『職種別賃金』의 1971年度 테이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情報는 그 해의 最高賃金階層의 平均賃金은 그 階層의 下限賃金의 1.35배였다는 사실이다. 약간의 추측 정도라도 얻기 위해 필자는 『都市家計年報』에 나와 있는 所得階層別 被傭者 家口의 수를 한번 調査해 보았다. 물론 두 統計의 所得概念은 서로 다르다. 즉 『職種別賃金』의 경우에는 被傭者 個人의 賃金이며 『都市家計年報』의 경우에는 被傭者 家口의 總所得 및 勤勞所得이다. 그러나 被傭者 家口의 總所得 중에서 勤勞所得이 차지하는 比重이 90%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必要한 情報를 제공해 줄지도 모른다. 1963년부터 1981년까지의 『都市家計年報』에 의하면 被傭者 家口의 最高所得階層의 平均所得은 거의 언제나 그 階層의 下限의 1.3배 내지 1.4배로 나타났고, 1.5배를 넘는 경우는 한 해도 없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앞서 最高賃金階層의 平均賃金이 그 下限의 1.35배라고 한 假定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1975年과 1978年の 두 해는 다른 해에 비해 最高賃金階層이 두

덤기 때문에 그 階層의 平均賃金이 下限의 1.35 이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이 두해에 한해서만 最高賃金階層의 平均賃金이 下限의 1.5배라는 제 2의 假定下에 지니係數를 한번 계산해 보았다. 그 값은 <表 1>에서 ‘*’ 표로 나타나 있다. 1.35의 가정 때보다 1.5의 가정하의 지니係數가 더 큰 것은 당연하다. 다른 해는 몰라도 이 두해에 대해서만은 확실한 지니係數의 推計가 困難하며 필자의 추측으로 1.35의 가정보다 1.5의 假定下의 推算値(‘*’ 표)가 더 진정한 지니係數의 값에 가까운가 아닐까 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問題는 1967年과 1970年의 두 賃金資料에 관해서이다. 이 두해는 10인 이상이 아니고 5인 이상의 從業員을 가지는 事業體를 調査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위의 『職種別賃金』과 직접 比較하는데 問題가 있다. 다행히 1967년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資料가 企業規模別로 따로 나와 있어서 5인 이상과 10인 이상의 두가지 企業規模에 대한 지니계수의 推算이 가능하였다. <表 1>에서 이 두가지 推計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1979年의 경우에는 두가지 推算이 불가능하여 5인 이상의 從業員을 가지는 事業體의 지니係數만 계산하였다. <表 1>에서 1967年과 1970年의 5인이상의 企業規模에서 계산한 지니係數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로 표시해 두었다.

<表 1>은 이상의 모든 가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結果를 要約한 것이다. 表에는 카쿠와니의 方法에 의해 계산한 지니係數[지니(2)] 뿐만 아니라 종래의 近似法에 의한 진정한 지니係數의 下限値[지니(1)]도 표시되어 있다. 이 두 係數는 絕對値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시간에 따른 變動에서는 서로 矛盾되지 않는다. 全産業을 볼 때 지니係數는 1979年代 초기에 비해 1980年代 초기에는 0.39에서 0.34 정도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자료에서 勤勞者 비중의 5인상을 차지하는 製造業에서만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다시 産業을 製造業과 製造業以外の 둘로 나뉘어서 지니係數를 계산해본 결과 지니係數의 하락은 두 部門에서 함께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製造業의 경우에는 지니計數의 하락이 1967년부터 1981년까지의 기간에 꾸준히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 下落速度가 다른 産業에 비해 두드러지게 빨랐음을 알 수 있다. 14年 사이에 지니係數가 0.40에서 0.32로 떨어졌음은 특기할 만하다. 製造業이외의 다른 産業에서도 지니係數가 1970年代에 0.35에서 0.31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問題는 지니係數의 下落이 꾸준히 일어났 것인가 아니면 1970年代 초반에는 상승하다가 후반에 와서 비로소 下落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點이다. 現在의 단계에서는 이 問題에 관해 確實한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

〈表 1〉賃金分配의 推移, 1967~81 (집단자료에서 계산한 지니係數)

	계층의 수	최고임금 계층의 비중 (%)	전 산 업		제 조 업		제 조 업 이 외	
			지니 (1)	지니 (2)	지니 (1)	지니 (2)	지니 (1)	지니 (2)
1967	18	0.1			0.400	0.404		
1967**	18	0.1			0.392	0.396		
1970**	19	0.6	0.392	0.394	0.390	0.393		
1971	18	2.5	0.389	0.392	0.380	0.382	0.348	0.353
1972	18	2.8	0.385	0.388	0.368	0.370	0.358	0.363
1974	15	3.4	0.376	0.379	0.372	0.375	0.349	0.353
1975	15	8.4	0.374	0.379	0.367	0.371	0.345	0.355
1975*	15	8.4	0.388	0.395	0.375	0.379	0.360	0.373
1978	12	9.4	0.354	0.361	0.343	0.347	0.321	0.336
1978*	12	9.4	0.369	0.377	0.352	0.358	0.337	0.356
1979	16	2.3	0.367	0.369	0.348	0.350	0.345	0.347
1980	23	0.9	0.347	0.348	0.330	0.331	0.318	0.319
1981	23	1.5	0.339	0.340	0.321	0.322	0.312	0.314

註: 賃金=定額給與+超過給與.

지니(1)=진정한 지니計數의 下限値.

지니(2)=카쿠와니의 方法에 의한 지니계수.

*는 1975, 1978 두 해의 最高賃金階層의 平均賃金を 그 階層의 下限賃金の 1.5배로 가정 한 뒤 계산한 것임. 다른 경우는 모두 1.35배.

**는 5인이상의 企業規模. 다른 경우는 모두 10인 이상임.

資料: 한국은행, 『賃金基本調査報告書』, 1967.

한국산업개발연구소, 『賃金基本調査報告書』, 1970.

노동부, 『職種別賃金』, 1971~81.

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쓰는 資料는 1975年~78年의 期間에 대해 正確한 情報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974년까지는 지니係數가 하락하는 경향이 보이며 또한 동일한 경향이 1979년부터 1981年 사이에도 발견된다. 問題는 1975年에서 1978年 사이의 期間이다. 우리가 1975年과 1978年의 두해의 最高賃金階層의 平均賃金を 그 階層의 下限賃金の 1.35배라고 가정하면 지니係數는 1970年代를 통해 꾸준히 하락한 것 같다. 이 경우 下落速度는 1970年代 초반보다는 후반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1.35 대신 1.5를 가정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1970年代 초반에 조금씩 하락하던 지니係數가 1975년에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1970年代 후반에 다시 상당히 빠른 速度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쪽이 맞든 관계없이 1970年代를 통털어 볼 때에는 지니係數가 하락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과연 지니係數가 하락했는지 確認하기 위해 몇개의 性別 및 學歷別 集團 내부의 지니係數도 계산해 보았다. 이 計算은 賃金階層別 勤勞者數의 統計가 性別, 學歷別

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可能하다. 計算結果는 <表 2>에 요약되어 있다.⁸⁾ 이번에는 이 기간 동안에 증가해온 보너스가 賃金分配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넣기 위해 보너스도 포함시켜 계산해 보았다. <表 2>의 결과도 역시 1970年代를 통해, 그중에서도 특히 1970年代의 후반에 와서 賃金不平等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男女 양쪽에서 함께 지니係數가 하락했지만 특히 女性勤勞者들 사이의 賃金不平等이 상당히 크게 감소한 것 같다. 그리하여 1980年代 와서는 男性에 비해 女性의 集團內 不平等이 눈에 띄일 정도로 작아졌다. 그리고 學歷別로 볼 때에도 역시 지니係數의 下落現象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특히 低學歷勤勞者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두가지 점은 우리에게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1970年代에 賃金不平等이 감소했다고 할 때 그 상당부분이 低賃金을 받는 女性 또는 低學歷勤勞者들 內部的 不平等의 감소라는 形態로 나타난게 아닌가 하는 點이다.

이상의 分析을 통해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賃金不平等이 적어도 10인 이상을 雇傭하는 事業體에서는 상당히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쿠즈넛츠의 逆U字假說을 적용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고 또 그 假說 자체가 원래 賃金分配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구태여 한번 적용해본다면 1970年代의 韓國의 1인당 國民所得水準을 볼 때 賃金 不平等의 감소경향은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平等化傾向은 韓國과 비슷한 經濟發展패턴을 추구해온 東아시아의 여러나라에서 所得分配가 개선되어 왔다는 事實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두가지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韓國의

<表 2> 集團內部的 賃金不平等의 變化

연 도	전 체	성 별		학 력			별	
		남 성	여 성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대	대 학
1971	0.402	0.359	0.315	0.364	0.344	0.309	0.289	
1974	0.393	0.355	0.287					
1975	0.393	0.353	0.290	0.337	0.336	0.322	0.286	0.235
1979	0.363	0.344	0.239	0.300	0.309	0.314	0.311	0.281
1980	0.361	0.318	0.217	0.301		0.292	0.274	0.267

註: 賃金=定額給與+超過給與+(1년 보너스)/12.

표의 수치들은 지니(1)을 나타낸다.

資料: <表 1>과 같음.

8) 여기서의 계산은 最高 또는 最低賃金階層에 속하는 勤勞者의 비중 마위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可能性이 있음을 인정하나 全體的인 경향은 把握될 수 있다고 본다.

賃金分配이지 全體의 所得分配은 아니라는 점이다. 朱鶴中의 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1970年代에 財産所得의 分配은 악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本稿에서는 그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하려 한다. 둘째로, 14年이란 期間은 긴 歷史의 안목에서 보면 매우 짧은 것이므로 위에서 본 어느 정도의 賃金의 平等化傾向이 長期的인 것 내지 앞으로 계속될 성질의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1970年代 후반의 일시적 景氣過熱이 가져온 短期的 現象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앞으로의 研究가 해명해야 할 課題일 것이다.

우리가 賃金分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要因을 생각해 본다면 이 기간에 韓國의 賃金不平等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일찍 보기만큼 놀라운 發見은 아니고 어찌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現象일지도 모른다. 첫째, 이 기간 동안에 勞動市場의 유례없는 逼迫(tightness)이 일어났다. 失業率의 減少, 賃金의 상승, 離職率 및 求人率의 상승, 그리고 여러 部門에서의 人力難 등이 이 시기에 겹쳐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런 현상의 分析에 기초를 두고 裴茂基는 韓國經濟에 1975年경에 루이스모델에서 말하는 轉換點(turning point)이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裴[21]). 이 主張은 상당히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으나 필자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약간의 疑問을 가지고 있다. 첫째, 1970年代 후반의 勞動市場의 여러 變化는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不況으로 인해 그 경향이 중지되거나 심지어는 역전되는 現象을 보이고 있어 확실한 判斷은 좀더 시일을 두고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로는 裴茂基가 1975년경을 轉換點으로 보면서 드는 증거 중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가 賃金隔差의 縮小現象인데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몇가지 賃金隔差는 1970年代 초기에 이미 축소가 시작되고 있어 轉換點이 몇해 앞당겨왔을 가능성은 없겠는가 하는 點이다(李[11, Chap.4]). 이러한 轉換點의 問題는 매우 흥미 있고도 중요한 것이니만큼 앞으로 보다 깊이 研究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轉換點이 언제 왔느냐에 관계없이 분명한 事實은 韓國의 勞動市場이 1970年代 후반에 급격한 變化를 경험하였다는 點이다. 이러한 變化가 一時的, 景氣的인 것이냐 아니면 構造的인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 시기의 勞動市場에서 人力을 확보하기 위한 企業사이의 치열한 競爭은 賃金隔差와 賃金不平等의 減少에 기여했음에 틀림없다. 完全雇傭과 인플레이션이 賃金隔差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레더[18], 던루프等[8]). 그런데 人力의 不足과 인플레이션은 노동자 집단 사이의 賃金隔差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집단 내부의 賃金不平等도 역시 줄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韓國이 1970年代에 경험한 勞動市場의 逼迫과 만성적 인플레이션 現象은 함께 賃金分配의 개선에 기여한

要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높은 經濟成長率이 所得分配에 미치는 效果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橫斷面資料에 기초한 回歸分析에 의하면 거의 영향이 없거나 약간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알루왈리아[2], 파파네크[17]). 이 측면에서 韓國의 所得分配이 악화되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다. 또한 높은 人口成長率은 所得不平等을 深化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알루왈리아[2]) 韓國은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끝으로 이 기간에 韓國의 教育은 大學水準만 例外로 하고는 급속한 量的 擴大를 보였다. 높은 教育水準이 낮은 不平等과 相關關係가 있다는 研究가 있으나(아틸만等[1], 스노드그라스[19]) 그 이유는 先驗적으로는 명백하지 않다. 人間資本理論에 의하면 教育의 擴大는 所得分配에 대해 한편으로는 유리한, 다른 한편으로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純效果는 理論적으로는 알 수 없고 經驗的인 問題가 된다. 韓國의 경우 급속한 經濟成長에도 불구하고 大學定員을 오래 묶어 두었던 것은 1970年代 후반 大卒初賃의 급상승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分配에 否定的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高等學校 이하의 水準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教育이 擴大되었다는 사실은 역시 分配에 肯定的인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된다. 숫적으로 後者の 비중이 前者를 압도하므로 全體的으로 볼 때 教育이 이 기간 동안 不平等을 深化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이상의 여러가지 要因들은 韓國에서 賃金不平等이 減少했다는 우리의 發見이 그렇게 뜻밖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는 現象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問題는 우리의 발견이 韓國의 賃金(또는 勤勞所得)의 分配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두가지의 既存研究와 정면으로 대립된다는 점이다. 그러면 節을 바꾸어 왜 이런 研究結果의 差異가 생기게 되었으며 그 差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I. 既存研究의 批判的 檢討

韓國의 賃金(또는 勤勞所得)의 分配이 악화됐다고 主張하는 두가지 研究가 있다(린다우어[13], 朱[22]). 이들 研究는 우리의 研究와는 사용 資料 및 對象이 되는 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研究結果의 差異는 資料나 기간의 差異에 원인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相反되는 研究結果 중에서 어느 쪽이 眞實에 가까운 것인가? 이런 問題들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1. 린다우어(David Lindauer)의 研究

린다우어는 그의 博士學位論文[13]에서 케냐, 베네주엘라와 더불어 韓國의 賃金問題를 分析하였다.⁹⁾ 여기서 그는 韓國의 賃金(그의 표현으로는 earned income)의 分配가 1958年에서 1972年 사이에 상당히 악화됐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主張의 근거는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에서 鑛業 및 製造業의 네자리 번호(four digit)의 産業의 平均賃金으로부터 不平等度를 계산해 본 데 있다. 그는 1958年과 1972年の 産業別 平均賃金에서 지니係數와 十分位分配分을 계산하여 비교한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블루칼라 내부의 賃金不平等이 화이트칼라 内部的 賃金不平等보다 더 크다. 둘째, 블루칼라 및 화이트칼라 内部的 賃金不平等이 1958年에서 1972年 사이에 함께 증가하였다. 셋째,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사이의 賃金隔差도 역시 擴大되었다. 네째, 賃金分配가 不平等해졌다. 不平等度를 지니係數로 보았을 때 그 값은 1958年の 0.229에서 1972年の 0.289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不平等의 深化를 分解分析해 본 결과 그 주요한 원인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사이의 賃金隔差의 擴大에 있다고 한다. 린다우어는 이러한 現象을 經濟發展의 初期에는 熟練勞動에 대한 需要가 供給을 超過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는 몇가지 問題點이 있다. 첫째, 鑛業과 製造業의 두개의 産業만 보고 전체의 傾向을 把握하기는 困難하다. 둘째, 린다우어의 資料는 1958年에는 155개, 그리고 1972年에는 257개의 産業別 平均賃金으로서 比較的 細分된 것이긴 하지만 과연 産業別 平均賃金의 不平等이 全體 賃金의 不平等을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筆者의 計算에 의하면 1966년부터 1971年 사이에 産業別 平均賃金의 不平等은 증가한 반면 위의 <表 1>에서 보았듯이 1967년부터 1971年 사이에 製造業의 賃金不平等은 감소한 것으로 보아 前者가 後者를 잘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表 1>에서 보았듯이 製造業에서의 賃金不平等은 1967年에서 1972年 사이에 減少하였다.¹⁰⁾ 따라서 린다우어가 주장하듯이 賃金不平等이 실제로 증가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길어보았자 1958년부터 1967년까지이지 더 이상은 아니다. 네째, 그가 택한 연도인 1972年은 우연히도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사이의 賃金隔差가 가장 큰 해일 뿐 아니라 인접한 해에 비해서도 隔差가 워낙 커서 자료의 신빙성이 다소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 해의 賃金隔差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만일 그렇다면 그가 주장하는 賃金不平等의 深化도 역시 과장되

9) 그의 研究는 메이슨[14]에 인용되어 있다.

10) 鑛業의 비중은 製造業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鑛業을 포함시키더라도 마찬가지로일 것으로 생각한다.

있을 것이다. 이상의 네가지 이유로 인해 린다우어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본다.

2. 朱鶴中の 研究

韓國의 勤勞所得의 分配가 악화됐다고 하는 또 하나의 研究는 朱鶴中에 의해 제시되었다(朱[22], 朱[7]). 그의 研究는 1965, 1970, 1976의 세해의 所得分配狀態를 비교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分配의 變化를 추적해 보려는 것이다. 그는 所得을 세가지 범주, 즉 都市 被傭者 家口의 소득, 財産所得, 그리고 農家所得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의 分配의 變化 및 전체 所得分配의 變化를 推計하였다. 이 중 本稿의 主題와 관련되는 部分은 被傭者 家口의 所得分配인데 朱鶴中는 이것을 추정하기 위해 『都市家計年報』를 주로 利用하였다. 그런데 이 資料는 원래 所得分配 資料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利用하면 여러가지 問題點이 생긴다. 朱鶴中の 研究의 큰 장점은 이런 問題點들을 매우 세심하게 검토, 분석하여 資料를 수정한 뒤에 分配를 推計했다는 데 있다.

朱鶴中이 행한 주요한 修正을 보면 첫째, 『都市家計年報』의 조사대상이 되는 가구의 所得上限線 이상의 가구를 所得稅 資料를 참고하여 표본에 포함시켰고, 둘째, 『經濟活動人口年報』에 따라 失業率을 조정한 뒤 표본에 포함시켰고, 셋째, 面에 거주하는 被傭者 家口의 所得을 推定하여 포함시켰다. 그가 도입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가정, 예컨대 失業者를 새로 표본에 포함시킬 때 그 所得을 얼마로 보는가 등등의 가정은 그의 論文에서는 明示되어 있지 않아서 확실히 말하기는 困難하지만 과거의 研究에 비해 朱鶴中の 研究는 進一步한 느낌을 준다. 그의 推計結果를 보면 韓國의 所得分配는 1965年에서 1970年 사이에는 약간 개선되었으나, 1970年에서 1976年 사이에는 크게 악화된 것으로 되어 있다. 本稿의 관심대상인 都市의 被傭者 家口만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U字의 경향이 나타난다. 즉 지니計數가 1965年の 0.399에서 1970년에는 0.304로 크게 하락했다가 1976년에는 다시 0.355로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朱鶴中の 研究結果와 위의 <表 1>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一致點과 差異點이 있다. 1960年代에 관한 한 賃金不平等이 하락했다는 점에서 두 結果는 일치하나 1970年에서 1976年 사이의 기간에는 일정한 差異가 있다. 즉 朱鶴中の 推計結果는 勤勞所得의 分配가 상당히 惡化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表 1>에 의하면 1970年代 중반의 賃金分配는 1970年무렵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推計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要因이 있는가 어떤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

첫째, 朱鶴中の 경우 分析의 단위가 被傭者 家口인데 비해 우리의 분석단위는 被

傭者 個人이다. 이 두 單位 사이의 分配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研究도 없는 것 같다.¹¹⁾ 이 두가지 分配가 서로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참고로 日本의 被傭者 家口의 所得分配에 관한 研究結果(미조구지 等[15])와 筆者가 日本의 『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에 카쿠와니의 近似法을 적용하여 계산해본 被傭者 個人的 賃金分配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表 3>에 요약되어 있다. 表에 의하면 두가지 分配는 거의 항상 같은 方向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일한 例外는 1970年에서 1975年 사이에 被傭者 家口의 所得分配는 악화됐으나 被傭者 個人的 賃金分配는 개선된 것인데 後者の 경우도 약간의 時差를 가지면서 1975年 이후에는 惡化되고 있다. 두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서는 소위 日本經濟의 轉換點이라고 일컬어지는 1960년경을 分水嶺으로 해서 賃金 또는 勤勞所得의 分配가 逆U字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다른 產業에 비해 製造業에서의 賃金不平等의 감소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後者の 경향은 앞서 <表 1>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어 韓日 兩國에서 공통적으로 製造業의 어떠한 特徵이 이런 賃金平準化 경향과 關係있는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日本에 있어 두가지 分配의 비교는 결국 우리의 수수께끼에 確實한 解答은 제공하지 않지만 그런 대로 흥미있는 事實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朱鶴中の 研究과 本稿의 研究의 두 번째 差異는 그의 자료는 被傭者 家口의 賃金外所得도 포함하지만 우리의 資料는 賃金만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都市家計年報』에 나타난 被傭者 家口의 賃金外所得의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減少해가고 있어서 이것이 위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세번째 差異는 朱鶴中の 研究는 失業率을 고려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의 자료에는 雇傭된 勤勞者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1970年에서 1976年 사이에 非農部門의 失業率은 7.4%에서 6.3%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점은 어느 쪽이나 하면 다소라도 分配의 改善에 기여했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위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는다.

네번째 要因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被傭者 家口 構成員의 勞動參與率이다. 만일 問題의 기간 동안 부유한 家口의 勞動參與率이 가난한 家口의 勞動參與率에 비해 相對적으로 더 크게 상승했다면 위의 두 推計結果의 차이가 說明될 수도 있다. 그러나 『都市家計年報』에 의하면 그 기간에 부유한 家口의 勞動參與率이 가난

11) 家口所得의 分配가 家口 1인당 所得의 分配보다 더 不平等하다는 研究(베누스와 모르간 [4])가 있으나 우리의 問題와는 다른 것이다.

〈表 3〉日本の被傭者個人の賃金分配と被傭者家口の所得分配の推移

연도	被傭者個人			被傭者家口	
	非1次産業	製造業	製造業以外	(1)	(2)
1954	0.335	0.357	0.306	0.315	
1958	0.352	0.366	0.330	0.321	
1960	0.349	0.364		0.322	
1963				0.309	0.224
1965	0.297	0.304	0.286		0.206
1968	0.287	0.296	0.279		0.201
1970	0.276	0.282	0.269		0.186
1975	0.243	0.242	0.243		0.198
1980	0.249	0.243	0.252		

註：被傭者家口 (1)은 月給與階層別 資料에서 계산한 지니係數.

(2)는 年給與에서 계산.

資料：被傭者 個人の 賃金分配는 勞働省『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에서 계산.

被傭者 家口の 所得分配는 미즈구찌 等[15, p.245]에서 인용.

한 家口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섯째로는 〈表 1〉의 계산에서 제외한 보너스나 現物所得을 생각해 볼 수 있다. 總給與에서 보너스가 차지하는 比重은 1971年の 平均 5.5%에서 1980年の 14.0%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위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왜냐하면 위의 推計의 差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너스의 增加가 아니라 보너스의 分配의 심한 惡化가 6年 사이에 일어났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믿기 어렵다. 그리고 1970年代에 一部の 高所得層 사이에 住宅이나 自動車 등의 형태로 現物給與가 지급된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소수에 限定되었을 것이고 또 이런 現物給與가 『都市家計年報』 자료에는 計上되어 있는데 『職種別 賃金』 자료에는 計上되어 있지 않다는 證據도 없다.

여섯번째 要因은 9人 以下の 従業員을 가지는 零細事業體가 우리의 資料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事業體에서 일하는 勤勞者の 比重은 계속 增加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아직도 매우 낮아 1981年 現在 非1次産業에서 31.4% 밖에 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2/3 이상의 勤勞者가 영세규모의 사업체에서 일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零細事業體에서의 賃金分配의 변동여하에 따라서 위와 같은 수수께끼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즉, 10인 이상 규모의 事業體에서는 賃金不平等이 減少하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에 零細事業體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수수께끼이기도 한 零細事業體의 賃金資料가 전혀 없는 現在의 상황에서는 검증

할 方法이 없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족한 해답을 못얻은 이상 우리는 직접 『都市家計年報』를 利用하여 被傭者 家口의 所得分配의 推移를 검토해 보는 것이 다음의 段階가 될 것이다. 다행히 이 資料에는 所得階層別 家口數가 나타나 있으므로 역시 카쿠와니의 近似法에 의해 지니係數의 推算이 가능하다. 단 여기서의 計算은 所得上限線 이상의 高所得者나 失業者, 邑, 面 居住者 따위의 요인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출판된 冊子에 따른 것이므로 朱鶴中의 推計와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被傭者 家口의 所得分配의 推移에 대해 약간이나마 端緒를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計算結果는 <表 4>에 나타나 있다.

<表 4>를 보면 지니係數가 1970年の 0.277에서 1976年の 0.332로 0.05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상승의 폭은 朱鶴中의 研究結果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年度別로 보면 지니係數가 1974년까지는 대체로 下落趨勢를 보이다가 1975년에 갑

<表 4> 都市被傭者家口의 所得分配의 推移

연 도	소득계층 의 수	가 구 수	소 상 한 선 득 수	평균소득	지니 (1)	지니 (2)	지니(朱)
1963	8	955	500.0	6.0	0.329	0.341	0.39
1964	8	974	500.0	7.3	0.303	0.313	
1965	8	998	500.0	8.5	0.289	0.300	
1966	8	1,005	500.0	11.8	0.290	0.307	
1967	10	1,005	500.0	18.2	0.315	0.321	
1968	10	1,272	1,500.0	21.3	0.298	0.304	0.30
1969	10	1,079	2,000.0	24.7	0.288	0.296	
1970	7	890	2,000.0	28.2	0.266	0.277	
1971	7	878	2,000.0	33.3	0.261	0.272	
1972	8	881	2,000.0	38.1	0.261	0.269	
1973	8	978	2,400.0	40.9	0.276	0.284	0.35
1974	9	978	2,400.0	47.8	0.260	0.267	
1975	11	972	4,200.0	65.5	0.312	0.321	
1976	15	981	4,200.0	88.3	0.326	0.332	
1977	16	2,076	없 음	105.9	0.341	0.345	
1978	16	2,004	"	144.5	0.325	0.327	
1979	15	2,183	"	194.7	0.310	0.314	
1980	15	2,458	"	234.1	0.312	0.316	
1981	15	2,183	"	281.0	0.312	0.316	

註: 지니(1)=진정한 지니係數의 下限値.

지니(2)=카쿠와니의 近似法에 의한 지니係數.

지니(朱)=朱鶴中이 추계한 지니係數.

資料: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63~81. 朱[22, 1979, p.94].

자기 급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앞에서 보듯이 所得上限線이 간헐적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는 정확한 趨勢를 把握할 수 없다. 그래서 소박한 方法이긴 하지만 대체로 所得上限線과 平均所得이 어느 정도 比例的이라고 볼 수 있는 몇해를 골라서 趨勢를 보기로 하였다. 예컨대 1964, 1968, 1970, 1975의 네 해는 대체로 그런 條件을 충족시켜 준다고 할 수 있고 1966, 1972, 1974, 1976의 네 해도 그런대로 比例的인 데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時系列의 비교는 역시 1974년까지는 지니係數가 하락하는 傾向이 있으나 1975, 1976년에 오면 갑자기 큰 상승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그러면 1975년 내지 1976년의 급작스런 지니係數의 상승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이 두해의 『都市家計年報』를 보면 所得上限線에 관한 언급이 없다. 만일 1975년부터 조사대상의 所得上限線이 철폐되었다면 지니係數의 急上昇은 쉽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朱鶴中에 의하면 이 두 해의 所得上限線은 年 4,200만원이며 上限線이 철폐된 것은 1977년부터라고 한다(朱[22]). 그렇다면 1977년의 지니係數의 上昇은 上限線 撤廢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후는 지니係數의 하락경향이 보이며 이는 위의 <表 1>의 결과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1976년에 지니係數가 약간 증가하는 것은 그 해의 統計에 所得階層의 수가 11에서 15로 늘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表 4>에서 지니係數가 1974년까지는 하락경향을 보이고 1977년 이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향이 있으나 1975년에서 1976년의 두해에 걸쳐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하나의 잠정적 假

<表 5> 職業別 賃金隔差의 推移

年 度	전 기 술 문 직	관리직	사 무 직	판 매 직	서비스직	농림어업	생 산 직
1971	250	359	204	118	90	84	100
1972	244	382	183	133	91	90	100
1973	253	406	206	151	100	89	100
1974	211	354	197	130	92	79	100
1975	265	458	215	123	104	87	100
1976	292	474	222	112	103	86	100
1977	271	439	206	131	100	124	100
1978	270	431	181	125	99	105	100
1979	256	436	176	107	97	109	100
1980	246	395	162	89	100	110	100
1981	230	367	163	96	100	118	100

註：生産職 賃金を 100으로 놓았을 때 다른 職業의 相對賃金.

資料：勞動部, 『職種別賃金』, 1971~81.

說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假說을 뒷받침하는 證據로서는 다음과 같은 事實을 들 수 있다. 첫째, <表 1>에 의하면 賃金不平等은 1974년까지는 減少하고 있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1970年代 중반은 미지수이며, 후반에 다시 減少하고 있다. 그리고 <表 5>는 1970年代의 職業別 賃金隔差의 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生産職의 賃金を 100으로 했을 때 專門・技術職이나 管理職, 事務職 등 화이트칼라의 相對賃金이 1974년까지는 안정적이었다가 1975년과 1976년 두 해 동안 갑자기 크게 상승하였다가 그 후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위의 暫定的 假說과 부합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비슷한 현상이 企業規模別, 地域別, 產業別 賃金隔差의 推移에서도 발견된다. 즉 이들 隔差가 1970年代에는 全體的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다만 1975년, 1976년에는 그러한 축소경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심지어는 逆轉되는 사태도 일어나는 것이다.¹²⁾

그러면 왜 이런 現象들이 1975년, 1976년에 일어났는가? 筆者의 견해로는 1973年末의 세계적 석유위기로 인한 不況이 1973년부터 발생하고 그것이 賃金隔差나 分配에 영향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1975년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위에서 보았듯이 일반적으로 好況期에는 賃金隔差가 축소하고 賃金分配가 개선되는 경향이 있듯이 不況期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 賃金隔差나 分配가 얼마나 景氣狀態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위의 <表 5>뿐만 아니라 <表 4>에서도 발견된다. 즉, 그동안 하락해오던 지니係數가 1980년 이후에는 제자리 걸음인데 이는 역시 不況때문이 아닌가 보여진다. 그리고 企業規模別, 地域別, 產業別 賃金隔差도 景氣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李[11]).

만일 위의 假說이 옳다면 1970年代에 被傭者 家口의 所得分配가 악화했다고 主張하는 朱鶴中の 研究는 새로운 해석을 必要로 한다. 즉 朱鶴中은 1965, 1970, 1976의 세해만 잡아서 不平等度를 推計했기 때문에 그 年度의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그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위의 檢討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정적인 結論은 勤勞所得의 分配가 1970年代 前半에 계속 악화된 것이 아니라 1974년까지는 改善되었을 可能性이 높고 1975, 1976의 두 해에는 일시적으로 惡化했으나 이것은 어떤 構造的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景氣的 요인 때문이 아니었나 한다. 그리하여 1970年代의 후반에는 다시 賃金不平等이 상당히 빠른

12) 지면관계로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상세한 것은 拙稿 李[11] 참조. 그러나 대부분의 賃金隔差가 1976년 이후에는 일제히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런 異常事態는 겨우 두 해 정도 밖에 계속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속도로 減少하고 있고 全體的으로 본다면 1970年代는 賃金(또는 勤勞所得)의 不平等이 減少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¹³⁾

IV. 結 論

이상의 論議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勞動部の 「職種別賃金」과 그 앞의 두가지 賃金統計를 기초로 하여 推算해 본 賃金不平等은 지난 10~15年間 減少하는 뚜렷한 추세를 보여 준다. 다만 1970年代 中반에 일시적으로 그 추세가 정지 내지 역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石油危機 이후의 不況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不平等의 감소추세는 이 기간의 韓國의 勞動市場의 需給狀況, 높은 인플레이션, 敎育의 擴大 등의 현상과 부합할 뿐 아니라 비슷한 經濟發展패턴을 밟아 온 東아시아와 다른 나라들의 經驗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만일 위의 가설이 옳은 것이라면 韓國의 賃金(또는 勤勞所得)分配가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두 가지 研究 結果는 수정 내지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 가지 점에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며 논문을 끝맺고자 한다. 첫째, 이상의 논의는 엄격히 賃金(또는 勤勞所得)의 分配에 국한된 것이므로 財産所得, 農家所得 또는 全體所得에 擴大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點이다. 둘째, 위의 結果는 이 시기의 政府의 勞動政策 내지 賃金政策을 正當化시켜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政策의 評價는 보다 종합적인 考察을 필요로 한다. 셋째, 10~15년이란 기간은 긴 歷史의 눈으로 보면 매우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으며 이 시기의 賃金不平等의 減少는 다만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진정한 評價는 좀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本稿에서는 오직 事實의 把握에만 주력하였다.

參 考 文 獻

- [1] Adelman, Irma, and Cynthia Taft Morris, *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3.
- [2] Ahluwalia, Montek, "Inequality, Poverty, and Development," *Journal of*

13) 이 논문을 脫稿하고난 뒤 필자는 익명의 심사위원의 권고에 따라 朱鶴中의 최근의 연구(朱와 尹[23])에 접하게 되었다. 그 推計 結果를 보면 勤勞者 家의 所得分配가 1982년에 다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으로써 本稿의 推計와 부합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의 해석에 대해서는 朱鶴中과 필자 사이에 여전히 큰 차이가 있으며 이 문제는 앞으로 보다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Development Economics, Vol. 3 (1976), pp.307-42.

- [3] Bai, Moo-Ki, "The Turn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Developing Economies*, Vol. 20, No. 2 (1982), pp.117-40.
- [4] Benus, Jacob, and James N. Morgan, "Time Period, Unit of Analysis, and Income Concept in the Analysis of Income Distribution," in James D. Smith, ed., *The Personal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5.
- [5] Bhalla, Surjit S.,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Korea: A Critique and a Reassessment," mimeo., World Bank, 1979.
- [6] Brofenbrenner, Martin, *Income Distribution Theory*, Chicago, Aldine, 1971.
- [7] Choo, Hakchung,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in Chong Kee Park, ed.,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Seoul, KDI Press, 1980.
- [8] Dunlop, John T., and Melvin Rothbaum,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Wage Structur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71, No. 4 (1955), pp.347-63.
- [9] Jung, Yong-Duck, "Income Redistribution in Korea: Causes for the Growing Concern,"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 11, No. 1(1982), pp.29-48.
- [10] Kakuwani, Nanak C.,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Methods of Estimation and Policy Applic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11] Lee, Joung Woo, "Economic Development and Wage Inequality in South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83.
- [12] Lee, Suk-Chae, "Growth Strategy and Income Distribution: Analysis of the Korean Experienc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1982.
- [13] Lindauer, David L., "Labor Market Behavior in Developing Nation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79.
- [14] Mason, Edward S., et al., *The Economic and Social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 [15] Mizoguchi, Toshiyuki, Noriyuki Takayama, and Yasuhiro Terasaki, "Over-time Changes in the Siz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under Rapid Economic Growth: The Japanese Experience," in Kazushi-Ohkawa and Bernard Key, eds., *Asian Socioeconomic Development*,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0.
- [16] Morgan, James, "The Anatomy of Income Distribu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4, No. 3 (1962), pp.270-83.
- [17] Papanek, Gustav, "Economic Growth, Income Distribution, and the Political Proces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in Zvi Griliches, ed., *Income Distribution and Economic Inequality*, New York, Halsted Press. 1978.
- [18] Reder, Melvin W., "The Theory of Occupational Wage Differentials," *Ame-*

rican Economic Review, Dec. 1955, pp. 833-52.

- [19] Snodgrass, Donald R., "The Distribution of Schooling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Russell G. Davis, ed., *Planning Education for Development*, Vol 1, Cambridge, USAID/Harvard Center for Studies in Education and Development, 1980.
- [20] Szall, Richard J., "Emerging Trends in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and Their Implications for Further Planning," *Labour and Society*, Vol. 6, No. 4(1981), pp. 325-38.
- [21] 裴茂基, 「韓國勞動經濟의 構造變化」, 『經濟論集』, 第21卷 第4號(1982), pp. 571-614.
- [22] 朱鶴中,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 上, 下, 서울, KDI, 1979, 1982.
- [23] 朱鶴中, 尹珠賢, 「1982年 階層別 所得分配의 推計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研究』, 第6卷 第1號(1984).

Over-time Changes in Wage Distribution in South Korea, 1967~81

Joung Woo Lee*

Summary

The changes in income distribution with respect to time during economic development have recently drawn a great deal of attention from economists in many less-developed countries. The famous hypothesis of Kuznets has not always been supported by recent studies of time-series data. As far as East Asian countries are concerned, they have reportedly experienced an improvement in income distribution during the last two decades. We would normally anticipate the same picture in South Korea because it has pursued basically the same strategy of export-led development. However, it is strange that South Korea has allegedly shown a worsening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recent past. When we confine our attention to the distribution of labor income or wages, there have been two independent studies showing the worsening wage distribution in South Korea, one by David Lindauer (1979) and the other by Hakchung Choo (1979). Why is South Korea exceptional in this respect?

To answer this interesting question, we want to follow the changes in wage distribution over time in South Korea. The data we are using are the Report on Occupational Wage Survey (ROWS) annually compiled by the Ministry of Labor. A computer tape of the 1971 ROWS was available to the author. Lacking micro data except for one year, 1971, we heavily depend on Kakwani's approximation method of the Gini coefficient. We have to be very careful to get the coefficients since our data are not always favorable to the method. The resulting estimates are, I believe, fairly reliable except for the middle period of the 1970s. The result is rather striking since we observe a substantial decrease in the Gini coefficient between 1967 and 1981. We are not so sure about the earlier half of the 1970s since the data are not good enough for the mid-1970s. Our data

* Department of Economics,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suggest a decline, or at least not a rise, in the Gini up to 1974, but the period between 1975 and 1978 is mostly unclear. Yet, we can say the changes in the Gini, in whatever direction, were not too large in the first half of the 1970s. Regardless of the changes in the earlier half of the 1970s, however, it is certain that we see a lower Gini coefficient in 1981 than in 1967.

This result naturally leads us to examine the reasons for the discrepancy with earlier results. Lindauer's finding can be summarized as a rise in the inequality of the four-digit industry average wages in manufacturing between 1958 and 1972 using the Census (Survey) of Mining and Manufacturing. We can raise several questions. First, the industry average wages are not good measures of total wage inequality. Second, manufacturing is only a part of all industries. Third, we have evidence that the worsening did not occur, at least between 1967 and 1972. Last, the year he chose, 1972, may have exaggerated the rise in inequality. While understanding the difficulty of acquiring appropriate data from LDCs, his evidence seems too weak to support his conclusion.

Choo's finding can be summarized as a substantial rise in the inequality of urban employee households' income between 1970 and 1976, based on the data of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He also computed the Gini coefficient for farm households and urban employer households which is not our concern here. The discrepancy between his and our results is not easy to explain. I checked several possibilities which might have caused different results. One is the difference in units of analysis: households and individuals. Others include the non-wage income of employee households, unemployment, labor participation of household members, bonuses, etc. None of these factors by itself appear to give a good answer, though the combined effect may be great. One big factor ignored in our data is firms with fewer than 10 employees which may give an answer. But the problem is that we have virtually no information about them. When we directly checked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year by year, what we found was the possibility of a sudden jump in the Gini in 1975. This jump might be explained by the recession after the first oil crisis. We may conclude that except for 1975 and 1976 the inequality in wage distribution has declined between 1967 and 1981.